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즉시		
배포일	2022. 4. 28.(목)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교무처 교무과	문의	교무과 김옥선 (880-5161)

서울대학교,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2022년 4월 28일(목) 우리나라 K-POP을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명예박사 학위(경영학)를 수여하였다. 그동안故이종욱 WHO사무총장, 미얀마 아웅 산 수치 여사 등 112명이 서울대학교 명예박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0명은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12명이며 방시혁 의장은 113번째이며 문화계 인사로는 문학과 박완서 선생이 받은 적 있다.

□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HYBE)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래 프로듀서이자 경영인으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배출하였다. 하이브는 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이 가져온 향유자 감성의 변화를 읽어냈다. BTS는 기존의 아이들과 달리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공연과 팬플랫폼을 통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전형,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였다. 첨단 미디어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통적인 문화기업이 가졌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방의장은 2019년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됐으며, ‘버라이어티

500’ , ‘빌보드 파워리스트’ , ‘버라이어티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 등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2년에는 음악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리스트를 발표한 ‘빌보드 파워리스트’ 에서 현재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진 Top 25 안에 이름을 올렸다.

□ 오세정 총장은 “세상이 기술의 시대를 넘어 문화력의 시대(cultural turn)에 진입했다. 문화산업은 어느새 반도체 산업만큼 중요해졌다” 고 했다. 서울대는 문화관 재건축을 통해 ‘테크노 컬처: 기술 시대의 문화’ 에 대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문화리더들의 직접 참여하고 멘토링하는 ‘차세대 문화 엔진Next Culture Engine’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를 2022년 중에 런칭할 예정이다. 방시혁 의장의 명예박사 수여는 그 기점에 있다. 기술과 시장이 추동하는 문화는 어느때보다 커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연예산업’ 이라는 차별화된 인식 속에 있었다. 하지만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 스타들의 고군분투로 한국 문화산업은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기술과 시장 결합을 이해하여 산업 이상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 추천사(최해천 대학원장)

방시혁 의장은 우리나라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며, HYBE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우리나라 K-POP을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혁신적인 음악 산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의 신기원을 개척하였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본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생입니다. 그는 대학 입학 초부터 대중음악계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고, 지금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대학시절 미학에 대한 학문적 노력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시혁 의장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학업 능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 학문적 수월성이 지금의 성취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4년 한국 미학회와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문화융성 시대의 인문학과 예술>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방시혁 의장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 한류 확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세계적인 대중문화 흐름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이를 선도하려는 관점이 돋보였으며, 이론적인 시각과 실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발표였습니다. 현재 세계 대중문화 현장에서 방시혁 의장이 이룬 공로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지만,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만의 독보적인 시각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탄탄하게 잡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시혁 의장은 경영자이기 이전에 유능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제목만 들어도 잘 아는 명곡들이 수도룩합니다.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인 HYBE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 의장은 빌보드 싱글 핫100 1위를 수차례 석권한 BTS를 키워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팬덤 네트워크 플랫폼인 위버스를 만들어 대중음악으로 전세계인이 함께 하는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로서 전 세계 대중음악 문화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경영인으로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방시혁 의장은 빌보드가 뽑은 25인의 혁신가에 선정되었고 HYBE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중문화 및 세계 음악발전에 공헌하고 전 세계적인 음악 산업 시스템을 창출한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방시혁 의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답사(하이브 방시혁 의장)

안녕하십니까, 하이브 의장 방시혁입니다.

2019년도 졸업식 축사 이후 3년 만에 모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해주셔서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과 대학원장님, 여러 교수님 및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여해주신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가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예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깊은 학위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력이나 커리어가 반드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영학이란 분야를 정식 교육 과정을 통해 배워본 적 없이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배운 교훈과 책으로 익힌 지식들을 결합해가며 어렵짐작으로 힘겹게 경영을 해온 저이기에 오늘 수여해주시는 이 학위가 그간 해온 일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시는 의미로 느껴 지기도 해서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런 학위를 수여해 주시는 자리인 만큼 어떤 답사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경영인으로서 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자신이 탁월한 경영인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를 경영해 온 지금까지의 세월이 있는 만큼 과거에 기본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의 성장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즘도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20년이 넘게 해왔어도 경영이란 건 늘지를 않는구나’란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특히 회사의 경영진들이 능숙하게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걸 볼 때면 지금이라도 원래 제가 잘하는 일인 프로듀싱에만 집중하는 게 회사를 위해 더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가 서투른 경영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간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건 단지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걸 넘어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음악 프로듀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작하는 곡, 앨범과 아티스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했기에 제가 속한 회사의 경영 상태나, 산업군 전반의 지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주마처럼 눈앞의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던 당시의 제가 시선을 돌려 자신이 속한 음악시장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깨달음이 시작된 건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음악산업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 서부터였습니다. 1999년 성장의 정점을 찍은 음악산업은 디지털 음원의 등장과 함께 산업 전반에 있어 큰 폭의 하강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고, 그래서만은 아니었지만, 하필 바로 그 때 창업을 했습니다. 2001년 박진영 씨가 창업하는 JYP에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 것이 경영인으로서의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낸 아티스트의 음반은 예상치 대비 50% 미만의 판매성적을 기록했고, 회사는 창업한 지 1년 만에 자금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맞았을 때 경영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체험했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제 안에 경영과 사업, 산업이란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각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느리지만 꾸준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체크조차 귀찮아하던 제가 경영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도 이즈음부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5년 JYP를 떠나 홀로서기를 택한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의 모체가 된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깨달음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는 자신의 특출한 기술이나 역량을 과신하는 창업자들이 으레 하는 실수들을 또다시 저질렀고 결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 도산위기를 맞기 1년 전,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우리 업의 본질’ 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장기 워크숍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빅히트는 2AM, 에이트, HOMME 등 회사에서 선보인 모든 아티스트들의 대성공을 기반으로 승승장구 중이었습니다. 시리즈A 투자 역시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자금적으로도 탄탄했기에 워크숍을 통해 현재를 되짚으며 미래를 절박하게 준비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왜 성공의 한 가운데에서 회사의 성공이 제대로 된 궤도 안에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경영자라면 회사가 아무리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더라도 항상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맞지만 많이 모자란 경영자였던 당시의 저에게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2011년에 승승장구하며 투자 유치까지 성공한 회사를 1년 만에 도산 위기까지 끌고 갔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당시 저의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의 도산 위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산을 걱정하던 그 때, 1년 전에 진행했던 전사 워크숍은 제가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2011년 워크숍 주제였던 ‘우리 업의 본질’을 다시 파고들었고, 지난 실패들을 하나씩 모두 복기하면서 기업의 본질,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경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음에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내렸던 것이 돌아보면 지금까지 회사를 살아 남게 한 결정적 이유가 되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가 집요하게 탐구해 찾은 답은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답을 얻고자 수많은 실패 끝에 다시 공부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 와 생각하면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그렇기에 이것이야말로 제가 놓치고 있던 ‘본질’의 정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제1목표는 생존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생존해야 이후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도모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부여한 과제로서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과거의 오만과 속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수준으로 재분배하였으며, 이 과정 모두를 철저하게 기업의 목적에 동기화된 기준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 도산을 앞두고 가슴에 새긴 이 해답은 이후 제가 가본 적 없는 길을 들어설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 저를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답은 그저 살아남기만을 위한 1차원적 생존이 아니라 기업 고유의 목적에 연동되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며 지속 성장해나가는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바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실질적으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전문가로서 시작한 경영이지만 고군분투하며 찾아낸 답이 맞았던 것인지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래 회사는 큰 폭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6년도부터는 큰 실패 없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자 증명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같은 실패는 없을 거란 또 한 번의 조금 오만한 생각들 속에서 다음 단계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쟁 걸음을 걷던 중, ‘팬데믹’ 을 맞닥뜨렸습니다.

‘팬데믹’ 은 시장이 거스르기 힘든 변화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몇 가지 특수한 산업군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생존’ 이 가장 중요하다는 각성으로 기업을 경영해왔는데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오프라인 공연을 기반으로 한 팬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의 중심축 자체가 통으로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의 종식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암담한 예측치만이 나오던 때엔 이게 과연 경영 역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의 팬들이 고대하던 방탄소년단의 투어 일정은 무려 네 번 이상 연기를 반복하여 안내하다 결국 취소와 다름 없는 무기한 연기를 공지해야 했고 마침 그 당시 준비 중이던 코스피 상장에 대해서는 상장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약 20여년 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나 10년전 저의 모자란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도산 위기에 빠뜨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불가항력적인 파도와 같이 몰아쳐 회사를 침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때와 달랐던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장기비전에 집중하자,’ ‘우선은 살아남자’ 라는 생각으로 전쟁터에서 퇴보 없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각고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사업계획도 그만큼 수없이 수정되었고,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회사의 모든 계획을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이라 부르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막연하게 꿈만 꾸면서 키워왔던 일들이 있다면 팬데믹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재검토하기도 했고 사업 자체를 취소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상장, 그리고 전문경영인인 박지원님의 합류를 통해 하이브라는 기업을 좀 더 기업답게 만들어 조직적, 사업 구조적, 재무적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악산업의 혁신’ 이란 대의를 선포해온 회사가 이렇게 고꾸라져버릴 수는 없다는 결연함도 있었나 봅니다.

생존을 위한 분투 속에서도 팬데믹의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보겠다는 패기가 생겼고, 오랫동안 비전으로만 두던 IT 영역으로의 확장을 속도감 있게 현실화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몇 달 후 시장상황도 예측하기 힘든 재앙과 같은 시기였기에 기업의 코어, 본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팬데믹 이전에 계획했던 방향대로 나아갈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즉흥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순간들도 물론 있었고 회사가 잠시만 집중력을 잃어도 방향이 엇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본질을 믿고 지키려 하다보니 어느새 팬데믹이란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끝만을 보느라 혹 멀리 보이는 목표를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하이브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생존과 함께 경계 없는 확장을 이루는 것까지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출범시킨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제는 스토리 사업은 물론 NFT와 게임까지 사업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방탄소년단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와 ‘더 시티’ 프로젝트처럼 팬데믹 이전의 기획보다 더 멋있게 현실화된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면서도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놓지 않았기에 이를 수 있었던, 플랜A를 뛰어넘는 플랜B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하이브의 여정은 현재 기준으로는 해피엔딩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사이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고민해야 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팬데믹이 찾아왔듯,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은 언제든 또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국면에 들뜨기보다는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 세대의 음악 산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애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키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 경영인이 되려 합니다.

답사를 시작하며, 오늘 제게 수여해주신 학위가 개인적으로 격려와 위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끝맺는 순간이 되니 한 편으로는 단지 격려와 위안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부담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당부의 의미가 담긴 학위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속한 음악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묵직한 책임감을 더해주시는 것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이 다이내믹했던 비상상황들을 함께 뚫고 지금까지 와준 회사의 모든 아티스트들, 구성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난 2년간의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학위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여해주신 이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경영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